

##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숨意한 精神的 價値 연구

曹 錫 根\*

1. 머 리 말
2.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3.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숨意한 精神的 價値
4.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대국민 擴散의 容易性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930여 회(평균 5년에 1회)에 달하는 외침을 받았으며, 최근 100년간 겪은 전쟁만 해도 5회에 이른다.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의 와중에서 우리 민족은 일방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으며, 급기야는 한일합방(1910)으로 국권이 유린되고 민족사가 단절되는 치욕을 겪었다.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1945) 시에

는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총알받이로 희생되었고, 30여만 명의 꽃다운 처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가 일본군의 노리갯감이 되어 힘없는 조국을 원망하면서 타국 땅에서 죽어갔다. 1950년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의한 6·25전쟁으로 당시 총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520만 명의 인명손실과 30만 명의 전쟁미망인, 10만 명의 전쟁고아, 1,000만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남한의 물적 피해만 해도 가옥의 60%와 공업시설의 45%가 파괴되는 등 전 국토가 폐허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sup>1)</sup> 왜 우리 민족이 이처럼 처절한 受難의 역사를 반복해서 겪어야 했는가? 그 원인을 精神文化의 결여, 즉 護國精神과 尙武精神의 결여로 보는 시각이 많다.<sup>2)</sup>

100년 전 국제상황과 유사한 지금,<sup>3)</sup> 또 다시 그 수난의 역사를 반복하는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 精神文化의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sup>4)</sup> 이런 의미에서 근래에 발생했고,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 6·25전쟁이야말로 臥薪嘗膽의 정신으로 늘 되씹어 보면서 後世에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할 과제다. 그러나 최근 6·25전쟁과 관련된 국민의식조사들을 볼 때 상황은 碌碌하다. 실례로 행정안전부가 2008년 6월 23

1) 국방부 정훈기획관실, 「강대국의 조건」, 국방일보, 2005. 12. 30.

2)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9~1975)는 “한 개인이나 나라가 쓰러지는 것은 물질적 여건이 아니라 내부의 精神姿勢에서 기인한다.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의 크기나,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그 나라의 ‘文化의 힘’이다”라고 했다. 스위스의 역사가 요하네스 폰 뮐러(Müller, Johannes von, 1752~1809) 또한 “한 나라의 장래는 지도상에 나타난 땅덩어리가 아닌 그 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精神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재, 「국가보훈의 의의와 역할」, 국가보훈처 보훈정책학술세미나, 1998, pp. 3-4.

3) 서주석은 「한반도의 구한말 시대와 현재상황 비교분석」(1992)에서 19세기 말의 안보현실과 20세기 말의 안보현실이 매우 유사함을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했다.

4) 이현희 교수는 “우리의 오랜 역사를 볼 때 국난을 당한 시기의 국내정세는 대개 기강·법도가 혼미하고 국력이 약화되었을 때이며, 또한 사회의 조화와 정치세력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그리고 국가의 진로가 혼미하거나 민족의 철학이 뚜렷하지 못하였을 때 외침이 초래했으며, 상하국민의 단결이 깨어지고 민족의 생활이 문란하고 소극적이며 체념적일 때, 無事安逸과 사치 방종이 혼재되었을 때 국난을 맞게 되니 이러한 內憂外患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精神文化와 護國思想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현희, 「韓國의 精神文化와 護國思想」, 국회보-332, 1994. 6월호, p. 71.

\* 한미연합사 공보장교

일 전국 중·고교생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표 1>과 같다.<sup>5)</sup>

<표 1>과 같이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꼴은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이란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고 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쟁이며, 그 시기도 불과 5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청소년들의 역사·안보의식 부재의 심각성은度を 넘은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졌다.

<표 2>에서 보듯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북한은 오히려 미국, 일본보다 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6·25전쟁 당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130만 명 투입하고, 1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우릴 도운 미국의 입장에선 꽤 섭섭할 만한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표 1> 6·25전쟁을 먼저 일으킨 국가<sup>6)</sup>

구분	북한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남한	무응답
응답율 (%)	48.7	13.5	13.4	10.9	3.4	2.0	8.1

<표 2>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sup>7)</sup>

구분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율 (%)	28.4	27.7	24.5	13.0	1.9	4.5

5) 동아일보, 2008. 6. 25일자.

6) 위의 글.

7) 위의 글.

비단 이러한 문제는 특정계층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국방부 「입대장병 의식조사」(2004)를 보면 75% 정도의 장병들이 反美 감정을 갖고 입대하고 있었으며, 육사 가입교 생도(250명) 중 '主敵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인원이(34%), 북한으로 생각하는 인원(33%)보다 더 많았다.<sup>8)</sup> 이에 대해 생도들은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에게 그렇게 배웠다"라고 말했으며, 제성호 박사는 "지난 10년간 감상적 통일 교육은 있었지만 냉철한 안보교육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sup>9)</sup>

때마침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약화되는 國民 精神文化를 올바르게 정립시킬 새로운 대안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의 실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그 참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숨意하고 있는 精神的 價値를 규명하는 데 있으며, 또한 그 精神的 價値가 국민들에게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용이성도 함께 연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첫째,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의의와 성과는 무엇인가? 둘째,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숨意하고 있는 精神的 價値는 무엇인가? 셋째,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대국민 擴散의 容易性은 무엇인가? 등이다.

선행연구검토 결과, 충북대학교 박선주 교수의 「전사자 유해발굴과 실종자 확인사업에 관한 의의와 현황」(2007), 6·25전사자 유해발굴단장 박신한 대령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현황과 정부추진계획」(2007), 신경진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의 「전사자 유해발굴 유해의 개인식별 현황과 과제」(2007), 박종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사자 영현처리방안 연구」(2005), 이기호 중령의 「명예선양정책으로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04) 등의 논문들이 있었으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

8) 조선일보, 2008. 6. 25일자.

9) 제성호, 「안보교육 공백의 10년」, 안보포럼, 2006.

업을 국민의 精神的 價値와 연결·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한 精神的 價値를 糾明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학술적 의의를 담고 있다.

## 2.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 (1) 유해발굴사업의 취지

6·25전쟁 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 뛰어들었으나, 아직도 13만 명에 달하는 호국용사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0)</sup> 국가는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그분들을 땅속에 내버려 둔 채 수십 년이 지났다.<sup>11)</sup>

미국의 경우 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을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한국전쟁 당시 200구로 추정된 북한지역 내 미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조사팀을 27차례나 북한에 보냈으며, 해당 사업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 왔다.<sup>12)</sup>

우리나라는 2000년 4월 21일에서야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13만여 명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국가적 호국

10) 6·25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는 약 13만 7천여 명, 실종자는 2만여 명이다. 국립현충원에 27,000기가 안장돼 있으므로 13만여 유해는 어딘가 쓸쓸히 묻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신문, 2008. 6. 23일자.

11) 『육군지』, 2007년 6월호, p. 88.

12) 안명옥,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과 실종자 확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7. 6. 19. p. 5.

보훈사업으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무한책임의 의지를 실현함으로써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고양시키며, 유가족들의 피 맺힌 50여 년의 한을 풀어드리고, 국민들에게 오늘 의 우리가 있기까지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나라사랑과 호국보훈의식을 함양케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sup>13)</sup>

### (2) 유해발굴사업 추진 경과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작됐다.<sup>14)</sup>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47년 만이었는데, 당시 경북 칠곡 다부동 328고지(낙동강 전투)에서 그 첫 삽을 떴다.<sup>15)</sup> 2003년 7월 호국보훈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업지속추진이 결정되었으며, 전사자 유해발굴과 육군 유해발굴반이 육군본부에 편성되었다.<sup>16)</sup> 2005년 6월 호국보훈관계장관 회의에서는 국가영구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대통령령 제19479)이 2007년 1월부터 창설되었다.<sup>17)</sup>

1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www.withcountry.mil.kr.

14) 사업의 기본계획은 1999년 7월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이 2000년부터 4년간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2003. p. 90.

15) 경북 다부동지역과 안강지역에서 유해발굴작업을 벌인 결과, 총 149구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149구 중 41구는 시신의 유골 전체가 확보된 완전유해이고, 109구는 부분유해이며, 이 중에는 북한군 2구, 미군 1구(추정)가 있었고, 유품 2,361점이 발굴되었다. 연합뉴스, 2000. 6. 15일자.

16) 처음에는 육군 주도하 한시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2005년 국가영구사업으로 지정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를 육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한 것이다. 『육군지』, 2007년 6월호, pp. 89-90 참조.

17)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합동 전쟁 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 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를 벤치마킹한 조직으로 85명이 4개 발굴반과 계획, 조사, 감식, 지원 등 5개과로 구성되어 유해소재 조사로부터 신원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이는 미

2008년 3월에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제8924호)이 제정되어, 정부(국방부)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이자, 영구사업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2009년 1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가 완공되어 첨단시설을 갖춘 유해발굴 전문부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sup>18)</sup>

### (3) 유해발굴사업 추진과정

#### 1) 발굴 대상 지역 선정

유해발굴사업은 戰後 5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찾는다는 역사적인 일하기에 계획부터 종료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특히 국민정서와 유가족의 心證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민감한 사업이었다. 또한 6·25전쟁 참전 용사나 미망인 등은 대부분 古稀를 넘어 선 고령층이고, 일부 유자녀는 유해를 찾는다는 일념뿐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발굴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일 등은 쉽지 않았다.<sup>19)</sup>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사를 연구하여 초기전투, 지연전, 낙동강 방어작전, 반격작전, 휴전 회담기, 국지작전 등 58개 전투지역으로 분류·압축하였고, 관련지역 증언자 자료를 수집·분석 후 현장답사를 했다. 여기에는 국방부, 각군, 전사연구가, 발굴전문가, 현지부대 관계관, 증언자들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유해매장 여부, 발굴 가능성 타진 등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구체적인 발굴 장소를 선정하였다.<sup>20)</sup>

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창설된 전사자 발굴 및 신원확인 전담부대로서 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육군지』, 2006년 6월호, p. 90.

18)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 개관」, 2009. 1. 28.

19)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2003, p. 91.

20)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2003, p. 91.

#### 2) 유해발굴

발굴지역이 선정되면 지역 책임부대는 지역을 정밀수색·정찰하여 피·아 전투호·교통호 등을 찾아 표지하며, 발굴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개척한 후, 바둑판 모양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뢰 탐지를 실시하는데, 통상 2~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발굴준비가 완료되면 관습에 따라 開土祭행사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들어간다. 발굴작업은 지표층을 제거한 후에 정밀하게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유해나 유품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발굴인력이 투입되어 한 점의 유골이나 유품까지도 정성껏 발굴한다. 발굴된 유해·유품은 수습 전에 방위표를 놓고 촬영·기록하여 유해발굴 현장을 역사 자료로서 존안하는 작업을 거친다.<sup>21)</sup>

#### 3) 유해 감식

유해발굴의 최종 목적은 유가족에게 유해를 인도하는 것이기에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한 과정이다. 유해발굴 과정에서 인식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발굴된다면 신원확인이 용이하지만, 아군의 인식표나 신분증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발굴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증언자의 증언에 의한 방법, 유류품에 의한 방법, 과학적인 방법(영상압축법인 슈퍼 임포지션, 유전자감식)이 있는데, 이 모두가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 임시봉안소에 안치된 유해는 전문가들이 일일이 세척하고 계측하여 기록한 후 정식 수습절차를 걸쳐 봉안했다. 이 과정에서 차후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하여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시료 채취가 가능한 유해는 시료를 채취하여 국군 의무사에 냉동보관한다.<sup>22)</sup>

21) 위의 책, pp. 91-92.

22)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pp. 92-93.

4) 유해 처리

완전유해는 정식관에 수습하고, 부분유해는 소형관에 수습하여 태극기로 덮어 최대한의 예우와 정성을 다한다. 이어 유해를 임시봉안소로 운구한 후 책임지역부대 지휘관이 봉안식을 거행한 후 임시봉안소에 안치한다. 합동 안치식 일정이 확정되면 안치 대상 유해는 국립묘지로 奉送하게 되는데, 시료 채취를 한 유해는 차후 유가족에게 인도될 것을 대비하여 개별 유골함으로 안치하고, 시료 채취조차 불가능한 유해는 통합 유골함에 합봉하여 납골당에 안치한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유가족에게 인도하게 되며 유가족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한다.<sup>23)</sup>

(4) 유해발굴사업 실적

1) 유해발굴 실적

<표 3> 아군 유해발굴 실적(2000~2008)<sup>24)</sup>

구 분	유 해(구)			유 품(점)
	계	완 전	부 분	
계	2,855	1,140	1,715	52,453
2000	344	125	219	9,380
2001	211	86	125	9,943
2002	226	69	157	7,639
2003	152	112	40	4,942
2004	173	56	117	4,984
2005	203	85	118	3,085
2006	175	22	153	2,599
2007	534	447	87	7,577
2008	837	141	696	12,480

23) 위의 책, pp. 93-94.

24)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www.withcountry.mi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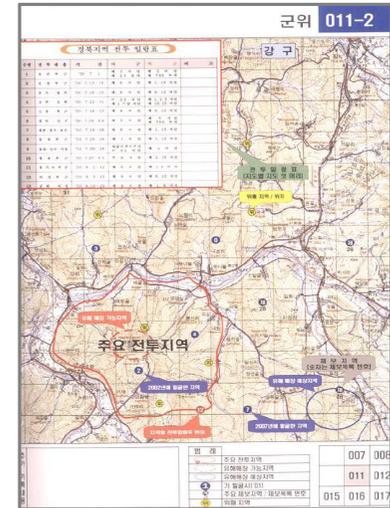
<표 4> 아군·UN군·적군 유해발굴 실적<sup>25)</sup>

구 분	유 해(구)							유 품(점)
	계	아 군			적 군			
		소계	국군	UN군	소계	북한군	중공군	
누계	2,855	2,241	2,229	12	614	418	196	63,951
2008	837	673	670	3	164	79	85	12,480

지난 9년간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며, 국가가 존립하는 한 그들을 보살피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자,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실질적으로 발굴된 유해 및 유품은 <표 3>, <표 4>과 같다.

2) 『6·25전사자 유해소재 관련집』 제작

2007년 10월 27일 발간한 『6·25전사자 유해소재 관련집』은 유해발굴사업의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다. 6·25전사자 유해 매장 推定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6·25전사자 유해소재 관련집』은 총 460쪽 분량의 도로교통지도 책자 형태의 컬러판으로 각 지역별로 전투 및 유해매장 추정지역, 과거 유해발굴장소 등이 표기되어 있다. 또한, 지역별 전투개황, 대략적인 전사자 인원, 매몰된 교통호, 개인호 등의 정보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비무장



▲ 전사자 유해소재 지도

25) 위의 페이지.

지대 내는 물론, 한국군 1사단과 중공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평북 운산 등 북한 지역 유해매장장지도도 함께 실려있다. 이 책자는 1,200부 인쇄되어 연대급 이상 군부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 유해매장지도의 발간에 따라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고, 유해발굴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sup>26)</sup>

### 3) 신청사 개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 개관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문부대의 위용을 갖춘 커다란 성과였다. 2009년 1월 29일 개관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는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위치하여 첨단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유해발굴·감식이 가능해졌다. 총 4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종전의 현장 감식소의 육안위주 기초감식수준에서 벗어나 유실된 유해를 복원할 수 있는 3차원 스캐너, 실제 현미경과 광학현미경, 디지털 X-ray 촬영기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유해보존실을 마련하여 신원이 미확인된 유해는 화장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어 지속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훼손정도가 심해 DNA 채취가 불가능한 유해도 향후 전망 채취할 수 있어 신원확인율을 크게 높였다.<sup>27)</sup>

### 4) 2009년 유해발굴 계획

2009년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발굴계획은 <표 5>과 같다.

26) 국방부 보도자료, 「6·25전사자 유해매장지도」, 2007. 10. 17.

27)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 개관」, 2009. 1. 29.

<표 5> 유해발굴계획(2009)

부대 (사단)	국유단 통제발굴		군단단위 자체발굴	
	3~7월	9~11월	3~7월	9~11월
38	7	7	14	10

또한, 2009년 유해발굴 활성화 추진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단별 유해소재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자료(2008~2010)를 구축한다.
- ② 유해소재 종합지도로 남한 및 DMZ지역은 2009년까지, 북한지역은 2010년까지 완성한다.
- ③ 유해발굴감식단 및 군단 단위 자체발굴(10~12개 군단)로 연간 국군 유해 1,000구 이상 발굴한다.
- ④ 유가족 DNA검사용 혈액샘플 연 3,000개 이상 확보한다.

## 3.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숨意한 精神的 價値

### (1) 국가 무한신뢰 증진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한 첫 번째 精神的 價値는 국가 무한신뢰 증진이다. 1965년 월남전에서 헬기를 이용해 적지공중강습작전에 투입된 美 제7기갑연대 1대대 무어 중령이 출정에 앞서 대대원에게 “Dead or alive we will all come together”(우리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집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한 훈시와, 1999년 보스니아 사태 시 유고 상공에서 격추되었다가 구출된 미 F-16기 조종사는 귀환 후 “적지에서 두렵지 않았

나”라는 기자 질문에 “국가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출해 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전혀 두렵지 않았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미국 정부의 노력과 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읽을 수 있다.<sup>28)</sup>

반면, 우리나라는 6·25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3만 명에 이르는 전사자의 주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50여 년을 보냈다는 사실은 큰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군무이탈의 경우 끝까지 추적·법적책임을 묻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한 이들을 장시간 방치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국가의 책무이행의 강력한 상징이자 실천이기에, 국가 신뢰 회복·증진에 순기능을 한다. 이러한 순기능에 대해서는 6·25전사자 유해발굴감식단의 홈페이지에 실린 국민들의 사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9)</sup>

〈제목 :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sup>30)</sup> : 6·25전사자 유해발굴사건을 보니 사랑하는 저희 가족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유해발굴단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될 무더위 속에서도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8)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7만 8,000명, 베트남 전쟁 때 1,800여 명으로 실종자를 추산하고, 영국과 파푸아뉴기니 근해에 잠수부가 포함된 발굴단을 파견하여 수중에 있는 유해를 건져내기도 했으며, 티베트, 라오스, 중국, 북한 등에서 계속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기호, 『명예선양정책으로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훈학술논문집』, 국가보훈처, 2004.

2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2009년 4월 17일 현재 457건의 글이 게재되어 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유해발굴에 대한 격려와 국가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글이 가장 많았고(29%),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관심 표명(19%), ▲안보의 중요성 인식(16%) 등의 내용이 있었다.

30) 이은탁,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www.withcountry.mil.kr, 2007. 5. 17.



▲ 고인의 유해 앞에서  
오열하는 유가족

〈제목 : 57년만의 해후에 감사드립니다〉<sup>31)</sup> : 6·25전쟁으로 전사한 부친의 유해를 찾는 행운이 제게 왔습니다. 모래 안장식을 앞두고 있는 전사자 자녀입니다. 저는 전쟁으로 7명의 가족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이번에 부친의 유해발굴로 57년만의 부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제 자식들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국가관과 애국심을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 정부와 감식단 한 분 한 분께 두 손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그동안 소홀했던 전사자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국가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해발굴사업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전사자 유해를 가족들에게 찾아주는 것은 단순한 보답·보은의 차원이 아니다. 이 나라가 목숨을 바쳐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또 6·25전쟁을 후손들이 절대 잊지 않도록 해준다...”<sup>32)</sup>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顯忠日 追念辭〉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한 ‘국가무한 책임의지 실천’을 천명한 바 있다.

“...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 홀로 남겨진 13만여 명의 6·25전사자들의 유해가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31) 기정순, 위의 페이지, 2008. 6. 16.

32) 조선일보, 2008. 6. 30일자.

무한책임 의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받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sup>33)</sup>

따라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국가 신뢰를 증진시키는 精神的 價値를 함의함을 알 수 있다.<sup>34)</sup>

## (2) 현존 장병의 전투의지 高揚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한 두 번째 精神的 價値는 현존 장병들의 전투의지를 高揚시킨다는 점이다. 전사자 유해 처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하는 행위인 동시에, 생존자의 심리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생존한 군인은 故人이 된 전사자와 그 처리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만약 그것이 송고하게 여겨진다면, 비록 전장에서 전사를 하더라도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 가치있는 죽음이란 확신을 갖는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는 곧 전투력과 전투의지의 약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전사자 처리는 현존 장병들의 사기 및 전투의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매우

33) 국방일보, 2008. 6. 9일자.

34) 김구섭 국방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란 구호로 유명한 미국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JPAC: Joint Prisoners of war, Missing in Action Accounting Command)’는 전쟁 포로나 실종자의 시신을 전문적으로 찾기 위해 창설된 부대다. 이 부대는 천문학적 예산을 써가며 미군이 전쟁을 치렀던 세계 각국에 배치되어 전문적인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1973년 창설 후 지금까지 1,400여 명의 전사자를 찾아내 시신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미국의 힘은 자발적 애국심에 있고,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는 바로 자발적 애국심의 발전소다. 이 부대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생겨난 ‘조국이 절대로 자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군인들의 믿음, 국민들이 느끼는 가슴 뭉클함이야말로 그 어떤 글이나 말로 대신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교육이다.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애국심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9. 5. 2일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이런 측면에서 현 세대의 국가관 약화<sup>36)</sup>의 원인에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遲延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반추(反芻)할 수 있다. 진동리 전투 현장 발굴 작업에 참여한 한 병사의 솔직한 소감이다.

“처음 유해를 발굴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sup>37)</sup>

발굴단의 심모 이병 또한 유사했다.

“전장에 수없이 방치된 유해를 발굴하면서 느낀 소감은 조국의 위해 목숨을 던진 선배들의 유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요즘 어떤 젊은이가 나라의 부름에 응하겠느냐, 유해를 빨리 수습해 안장해 드리는 것이 나라와 후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sup>38)</sup>

따라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한 두 번째 精神的 價値는 현존 장병들의 전투의지 高揚이다.

## (3) 북한의 실체 直視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한 세 번째 精神的 價値는 북한의 실체를 直視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유해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즉, 발

35) 박종서·이상식, 「전사자 영현처리 방안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05-3호, pp. 15-16.

36) 여기서 말하는 ‘국가관 약화’란 국가위기 시 회피 의식 팽배, 군대 입대 기피 팽배 등의 의미로 사용했다.

37) 주간조선, 조선일보사, 2007년 4월호, p. 20.

38) 위의 글, p. 20.

굴된 유해를 보면서 ‘그는 몇 살이었고’, ‘어떻게 죽게 되었으며’, ‘죽기까지 어떻게 싸웠는가’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땅 속에 묻힌 유해가 자신의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이러한 유해를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를 상고하게 된다.<sup>39)</sup> 이는 곧 비극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를 直視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국민들은 유해를 보면서, 측은함을 느끼는 동시에 전쟁 원인자인 북한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집단임을 직시하게 된다. 국민들은 애처로이 부서지고, 꺾여 있고, 삭아지고, 나무뿌리에 의해 관통된 유해를 보면서, 백마디의 말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북한의 죄악상을 낱알이 刻印할 수 있게 된다.



▲ 유해수습을 하는 장병들

이제는 6·25전사자 송환에 대한 북한의 비인도적 태도를 통해 또 한번 드러난다. 현재까지 발굴된 적군 유해는 북한군 384구, 중공군 177구다.<sup>40)</sup> 우리나라는 매년 군사정전위를 통해 유해송환 의사를 타진하지만,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북한은 만인의 평등이 실현되는 理想적인 체제가 아니라, 전쟁 범죄 집단이며, 자신들의 군인조차 수습하지 않는 비인륜적인 체제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세 번째 精神的 價値는 북한 체제의 直視이다.

이제는 6·25전사자 송환에 대한 북한의 비인도적 태도를 통해 또 한번 드러난다. 현재까지 발굴된 적군 유해는 북한군 384구, 중공군 177구다.<sup>40)</sup> 우리나라는 매년 군사정전위를 통해 유해송환 의사를 타진하지만,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북한은 만인의 평등이 실현되는 理想적인 체제가 아니라, 전쟁 범죄 집단이며, 자신들의 군인조차 수습하지 않는 비인륜적인 체제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세 번째 精神的 價値는 북한 체제의 直視이다.

39) 김성일, 「6·25전사자 유해발굴 과정과 상징성 분석」, 한양대학원 석사논문, 2004, p. 9.

40) 이 가운데 북한군 352구, 중공군 84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에 인도적 차원에서 매장되었다. 조선일보, 2008. 6. 23일자.

#### (4) ‘韓美血盟’정신 回復



▲ 한미합동감식(2008)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含意한 네 번째 精神的 價値는 ‘韓美血盟’정신 回復이란 점이다. 국민들은 유해발굴 현장에서의 미군 유해를 보면서 당시 미국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으며, 수많은 미군이 이 땅에서 전사했고, 이러한 미국의 헌신적 지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sup>41)</sup> 특히 50여 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故人들의 유해발굴에 애쓰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국가의 도리, 후손들의 역할에 대한 숙연함을 느끼며,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된다.<sup>42)</sup> 따라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含意한 네 번째 精神的 價値는 韓美血盟 정신의 回復이라는 점이다.

41) 한미합동유해발굴은 2006년 8월 3일부터 31일까지 미군 유해발굴을 위해 최초로 실시했다. 미측에서는 발굴을 위해 수집된 각종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현지답사를 통해 미군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전곡, 창녕, 칠곡 등 4개 지역에서 발굴작업을 실시했다. 미측에서는 전문부대인 ‘합동전사자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JPAC : 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에서 고고 및 인류학자들이 포함된 전문 발굴팀을 파견했고, 한측에서는 유해발굴반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06. 8. 3일자.

42) 한미합동감식에 참가한 육군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한미 합동 전사자 유해발굴은 6·25전쟁 당시 함께 피흘려 싸우다 전사한 선배전우들을 양국의 후배들이 함께 발굴함으로써 영원한 한미 혈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자유 수호를 위해 이 땅에서 숨겨진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들과 유가족에 대한 조그만 보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당신의 숭고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인터넷 자원 28번, 검색어 “유해발굴”.

## 4.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대국민 擴散의 容易性

3장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국가 무한신뢰 증진, ▲현존 장병의 전투의지 高揚, ▲북한의 실체 直視, ▲한미동맹정신 회복 등의 精神的 價値를 함의하고 있음을 규명해 보았으며,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가치가 국민들에게 확산·투영될 수 있는 容易性을 논하겠는데, 이는 곧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갖는 교육적 有用性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 (1) 유품 전시회

우선 6·25전사자 유품 전시회는 이 사업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有用하다. 유품 전시회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최하에 기차역, 학교, 군부대 등 사람들이 붐비는 다양한 장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유해발굴 사진전’은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기차역에서의 유품전시회 또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sup>43)</sup> 국민들은 전시된 유품을 보면서 옛이야기로만 여겼던 전쟁 실상을 實感할 수 있으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역사적 사실도 깨닫게 된다. 전시되는 유품은 국군 전사자가 소지했던 만년필, 실탄, 호루라기, 안경, 철모 등이며, 특히 한국영화사상 최단기간 관객 650만명을 돌파한 ‘태극기 휘날리며’ (감독 강제규)의 모티브가 됐던 만년필, 호루라기, 숟가락, 빗 등의 유품도 볼 수 있어 호응도가 매우 높다.

43) 이 전시회는 군부대와 관공서, 학교 등이 연계·실시하면서 호국보훈의식을 확산하고 있다. 이미 여러 부대에서 창설기념일이나 국군의 날 등 기념일을 활용해 실시했다.

### (2) 현충원과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를 연계한 견학 패키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는 국민들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有用性이 있다. 즉, 새로운 대국민 안보코스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 현충원은 이미 많은 방문객을 확보하고 있는 장점이 있고, 유해발굴사업은 다양한 감식장비<sup>44)</sup>로 국민들의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두 곳을 상호 연계·패키지화하면,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널리 알리는 홍보코스로 크게 활용할 수 있다. 현충원을 방문한 유가족, 학생, 일반인은 참배 후 이곳을 둘러보게 되는데, 이곳에 구비된 다양한 전사자 유품과 유해감식 과정 등을 직접 견학·체험함으로써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려는 국가적 노력과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숭고한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3) 언론을 통한 확산

#### 1) KBS 「반세기만의 귀향」 지속 홍보

6·25전쟁 유해발굴사업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44)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유해감식 장비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DNA 시료 채취 설비: 자체적으로 무균 시료 채취 설비를 갖추으로써 시료의 오염을 최소화하여 신원 확인율이 향상됨. • 실체현미경: 유해의 미세한 변형 및 세포학적 특징을 관찰하여 보다 정확한 연령 추정 및 인수(人獸) 감식을 가능하게 함. • 디지털 X-ray 촬영기: 치아를 통한 유해의 연령추정과 치과 진료(보철 및 발치)를 근거로 한 신원 확인 가능. • 세척장비: 뼈 건조기, 초음파 세척기, 후드 시스템 등으로 정밀한 세척을 통해 유해의 보존과 감식관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근무 환경 개선(유해가스 및 미세먼지 제거)에 기여. • 항온수조: 장기간 발굴 현장에 매장된 유품의 본래 성분을 보존하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음. • 3차원 스캐너: 유해의 유실 부분에 대해 그래픽으로 원형을 복원하고, 다수의 유해가 얽혀 있는 집단매장 유해의 경우 빠른 시간에 개채별 형체를 판독하여 수습할 수 있음.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 개관」, 2009. 1. 29.

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6·25전쟁의 상흔이 국민들 삶의 터전 곳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은 종종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지난 2006년 6월 6일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한국전쟁 전사자의 신원 확인과 유해찾기인 <반세기만의 귀향! 당신을 찾습니다>가 KBS 1TV를 통해 방송되었다. 이로 인해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는데, 2006년 최초 방송에 이어 2007년, 2008년까지 3년 연속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방송될 예정이어서 효과적인 대국민 확산 수단으로 자리잡을 듯하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전국 유가족의 DNA 무료 채혈, 전사자 병적기록 실시간 조회, 생방송 전화·현장제보를 통한 전사자 유해와 유가족 상봉의 기회 마련 등 이산가족의 아픔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국민들의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sup>45)</sup> 또한 2007년에 발굴된 11구 중 10구의 학도병 유해와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다섯 가족의 DNA 분석 결과 故 송원중씨의 유해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몽클하게 만들었으며, 당시 총 방문자 수 1159명, 채혈자 420명, 병적기록 조회 295건 등 국민들의 많은 참여도 있었다. 2008년에는 KBS 본사 스튜디오와 국립 서울 현충원 현장 스튜디오를 연결해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고, 현충원을 찾는 10만 유가족들의 직·간접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sup>46)</sup> 이처럼 KBS의 현충일 특집 생방송 <반세기만의 귀향! 당신을 찾습니다>는 일회성 방송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어지면서 유해발굴 및 유가족찾기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제보를 유도하는 등 효과적인 확산 수단이 되고 있다.<sup>47)</sup>

45) KBS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bs.co.kr/1tv/sisa/2008june/index.html>.

46) KBS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bs.co.kr/1tv/sisa/2008june/index.html>.

47) 위의 페이지.

## 2) 감동적인 소재발굴·홍보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50여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故人의 존재가 유가족과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스토리가 생성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 가. 58년 만에 찾은 내 아버지 강태수 일병 스토리



▲ 고 강태수 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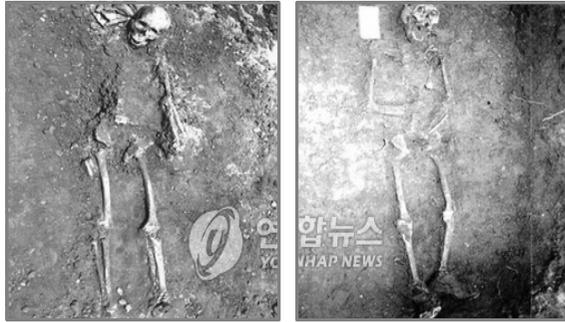
2007년 2월 충북 영동군에서 별목공사 중 한국 전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굴됐다. 총탄 자국 2발이 선명한 수통, 삼각자, 손목시계가 함께 나왔는데,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마지막 수단은 유전자(DNA) 검사였다. 얼마 후 우연히 강준석(고 강태수씨 아들, 66)씨는 분당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국군 유가족 채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홀로 지내는 어머니(민정희, 82)를 위해 참여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극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이뤄졌다. 충북 영동의 야산 중턱에 묻혀 58년을 지낸 강 일병이 마침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sup>48)</sup> 故 강태수씨. 49년 1월 9연대에 자원입대하여 이듬해 의정부 전투와 한강방어선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7월 18~21일 충북 영동군에서 전사했다. 4살 아들은 어느새 환갑 노인이 되었고, 사랑스런 부인은 58년간 수절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유전자 검사만으로 신원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였고,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울렸다.

### 나. 같은 날 입대, 같은 날 戰死한 형제 스토리

유석오·석환 형제는 1950년 12월 31일 국군 8사단에 입대해 10연대에

48) 한국일보, 2008. 3. 27일자.

함께 배치를 받았다. 형 석오 일병과 동생 석환 일병의 군번은 각각 '0181005', '0181014'. 군번을 받으려는 순간에도 헤어지지 않으려는 듯 바짝 붙어다니는 듯하다. 형제가 같은 날



▲ 故 유석환 씨

▲ 故 유석오 씨

입대하게 된 이유를 여동생(유석연, 73)은 “동생은 형이 입대하려 하자 같이 입대했고, 같은 부대에 배치받으려고 바짝 붙어다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두 형제는 1951년 2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 때 강원도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뒤 같은 해 4월 6일 지리산 빨치산 토벌 작전에도 나란히 참가했는데, 이 전투에서 형제는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다. 형제의 유해는 전투가 벌어졌던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지역에 매장되었는데, 지난 2007년 공교롭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굴되었고, 발굴 사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으며, 특히 형 석오씨는 참전하던 해 결혼해 부인이 임신중이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다.<sup>49)</sup>

(4) 축적된 영상자료

국방부 유해발굴사업이 8년째에 이르면서 다양한 영상자료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런 시청각 자료가 용이하게 활용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충일 특집으로 방송된 반세기만의 귀향, 당신을 찾습니다(2006~2008)를 비롯해

<표 6> 6·25전사자 유해발굴영상(2002~2009)<sup>50)</sup>

연도	일자	제목	매체
2008(9편)	6. 6	KBS 반세기만의 귀향-당신을 찾습니다	KBS-1TV
	6. 6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활성화	국군방송TV
	6. 6	유해발굴 사업의 성과	국군방송TV
	6. 3	김동건의 한국·한국인-유해발굴 감식단장	KBS-2TV
	6. 11	선진강군 위대한 유산-유해발굴 '영웅의 귀환'	국군방송TV
	3. 12	국방레이더 365-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국군방송TV
	2. 26	6·25전사자 신원확인(故 일병 강태수)	국군방송TV
	2. 28	국군뉴스-발굴개시 및 증편사열	국군방송TV
	2. 12	국방레이더 365-현장순회채널	국군방송TV
2007(15편)	11. 2	국방뉴스-한미합동감식	국군방송TV
	10. 26	춘천MBC 창사39주년 특별기획-0.00001%	MBC
	8. 17	국방뉴스-전반기 합동봉안식	국군방송TV
	6. 27	명강특강-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군방송TV
	6. 25	강지원의 정책데이트-6·25전사자유해발굴	한국정책방송
	6. 22	KTV 스페셜-어느 참전용사의 약속	한국정책방송
	6. 20	영상기록 I-開土	국군방송TV
	6. 21	영상기록 II-해후	국군방송TV
	6. 22	영상기록 III-전우	국군방송TV
	6. 11	MBC 현충일 특집-57년만의 귀가	MBC
	6. 6	국방뉴스-대통령 유해발굴 현장 방문	국군방송TV
	6. 6	반세기만의 귀향-당신을 찾습니다	KBS
	4. 18	클릭 병과를 찾아서	국군방송TV
	4. 1	취재파일 4321	KBS-1TV
	1. 10	국방뉴스-전사자 유해발굴 전담부대 창설	국군방송TV
2006(5편)	6. 6	EBS현충일 특집다큐-다섯통의 편지(5편)	EBS
2005(1편)	6. 6	KBS현충일 특집-유해발굴 54년만의 만남	KBS
2002(1편)	-	6·25전사자 유해발굴	유해발굴과

49) 앞의 글.

50) 이은탁,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www.withcountry.mil.kr, 2007. 5. 17.

국방홍보원에서 제작한 회상 (2007)은 제18회 이탈리아 국제 군사영화제에서 2위에 입상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며, 춘천 MBC 창사 39주년기념으로 제작된 「0.00001% 는 유해발굴사업을 5개월간 밀착·촬영한 것으로 뛰어난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KTV의 「어느 참전용사의 약속」은 반세기만에 가족에게 돌아간 사연으로 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폐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처럼 KBS 및 국군방송 등에서 제작된 방송자료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각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설득력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

## 5. 맺 음 말

본 논문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하고 있는 精神的 價値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 세 가지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의의와 성과는 무엇인가? 둘째,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하고 있는 精神的 價値는 무엇인가? 셋째,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대국민 擴散의 容易性은 무엇인가? 등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전사한 13만여 위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국가적 호국보훈사업으로서, 지난 2001년도 시작한 이래 2,800여 점의 유골과 52,000여 점의 유품을 찾아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피 맺힌 한을 풀어드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07년 10월 각 지역별 전투 및 유해매장 추정지역, 과거 유해발굴장소 등을 표기한 6·25전사자 유해소재 관련집 을 발간해 체계적인 구축여건을 조성했으며, 첨단시설과 장비를 갖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를 개관하여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유해감식 기반을 구축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하고 있는 精神的 價値는 첫째, 국가무한신뢰 증진으로서, 그동안 소홀했던 전사자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존 장병 전투의지 고양으로서, 장병들은 전사자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는 곧 그들의 전투의지와 직결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참혹한 전사자 유해를 보면서 그 비극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실체를 直視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며, 넷째, 미군 유해발굴 및 과정을 통해 6·25전쟁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혈맹임을 깨닫게 된다는 점 등이다.

아울러, 본 사업은 對國民 擴散 容易性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유품 및 사진 전시회를 통한 방법, 현충원과 신청사를 연계한 견학 패키지 방법, 언론홍보 방법, 축적된 영상자료 활용 방법 등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0일 해병대 한 병사의 아름다운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전역 후에도 유해발굴 작업에 계속 참여한 병사의 미담이었는데, "선배 해병과 이름 모를 용사들이 찬 바닥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었고, 이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군 생활의 의미와 군인의 희생정신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sup>51)</sup>라고 인터뷰가 소개되었다. 참으로 훌륭한 군인정신의 발로라 여겨졌으며, 최근 '국가관·역사관 부재', '이기주의 팽배'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신세대들의 의식성향을 고려할 때 그 병사의 행동은 더욱 그러했다. 一見으로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장병들의 精神文化 확립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누가 6·25전쟁을 일으켰는가'를 모르는 청소년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精神文化가 약화된 시대,<sup>52)</sup>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그 함의하고

51) 연합뉴스, 2009. 4. 19일자.

52) 북한이라고 답변한 청소년 48.7%. 본 논문 p. 2 참조.

있는 정신적 가치로 인해 국민 精神文化를 함양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지·확산되어야 할 국가적 사업임을 확신한다.

(원고투고일 : 2009. 3. 25, 심사수정일 : 2009. 5. 7, 게재확정일 : 2009. 6. 11)

주제어 : 6·25전쟁, 6·25전사자, 유해발굴, 정신적 가치, 국가 신뢰, 현충원, 전사자, 국가무한책임, 한미동맹, 전사자유품

<ABSTRACT>

### A Study on the Spiritual Values of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Deads' Remains

Cho, Seok-keun

This paper examines what it means to excavate fallen soldiers in the Korean War in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ways: first, what is the meaning and result of the excavation; second, what is the underlined value of the excavation; third, what enables the excavation to make an appeal to the wide public.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To begin with, the excavating remains of 130,000 fallen soldiers in the Korean War and burying them in *Seoul* National Cemetery is a government-led project for those who died gloriously for the country. Ever since the project started in 2001, it has excavated 2,800 remains and 52,000 items of fallen soldiers, thereby appeasing their souls and fulfilling wishes of many families to find them. Furthermore, with *Collection of Locations on the Remains of Fallen Soldiers* being published and the new building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Agency for Killed in Actions(KIA) Recovery & Identification(ID)" being built, it has activated a systematic and scientific method to recover remains of soldiers.

First, underlined spiritual value of the excavation project is that it will help people to develop trust on our government by proving them that the government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of those neglected fallen soldiers. Second, the disclosure of the whole recovery process will boost morals of those who are currently serving in the military by showing them that the

process will be done with dignity. Third, the remains of fallen soldiers, stored with brutal memories of conditions caused by North Korea, will help people to realize what North Korea has done. Fourth, the effort to excavate fallen soldiers of the US will further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by reminding the public how the ROK and the US have fought together defending the Peninsula from the communist invasion.

In conclusion, through numerous exhibitions of the excavated articles, field trips arranged to visit *Seoul* National Cemetery and the new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 building, publicity on the media, and the utilization of accumulated video sandimages, the project has effectively made a wide appeal to the general public. Thus, in this present situation of over half of teenagers being ignorant of who had started Korean War, it is certain that the underlined spiritual values of the excavation project will be a turning point in fostering spiritual values among people.

Key Words : the Korean War, Fallen Soldiers, the Excavation Remains of the Korean War Deads, Underlined Spiritual Values, National Cemetery, Full Responsibility, Trust on our Government, the ROK-US Alliance, A Government-led Project, Items of fallen Soldiers